

완벽주의 척도의 타당도 재검증

Revisiting the validities of the Perfectionism Scale

이기종* · 김은주**

Ki-Jong Rhee · Eun-Joo Kim

이 연구는 Hewitt과 Flett(1991c), 이기종(2006)이 제안한 완벽주의 척도 연구모형의 타당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Hewitt과 Flett(1991c), 이기종(2006)이 각각 제안한 연구모형과 수집된 자료가 잘 합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료에 모형이 잘 맞도록 모형을 수정해야 하고, 의미 없는 자유모수가 모형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모형을 다시 설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완벽주의 척도의 각 문항들이 완벽주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단일요인으로 제 기능을 하기 보다는 여러 문항에 걸쳐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가 측정하는 요인은 3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의 측정 문항이 수정되어야 하고, 나가서 우리의 사회문화적 실정을 고려한 완벽주의 척도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완벽주의 척도, 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I. 서론

완벽주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완벽주의에 대해 설명하는 입장들도 다양하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완벽주의가 다양한 정신병리, 혹은 부적응과 관계가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Hewitt & Flett, 1991a; Pirot, 1986).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다는 것을 야망이나 성취의 수준으로 파악하며 성공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자질로 간주하고 있다. Pacht(1984)은 완벽하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데, 사람들이 불가능한 완

벽함을 추구하면서 심각한 심리적 문제나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라 한다. 이처럼 완벽주의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단순한 관찰 이외에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거나, 완벽주의자들의 심리 현상에 대해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로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요인들과 연결 지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가 섭식장애를 설명하는데 주요 주제가 되거나(Bruch, 1978), 우울, 불안, 비만증, 편두통, 자살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Deffenbacher 등, 1983; Burns, 1980; Goldfried & Sobocinski, 1975). 또 Brody(1988)는 완벽주의와 성격유형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가 수동-공격적 성격, 회피적 성격, 정신분열적 성격, 의존적 성격 등과 의미 있는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완벽주의와 강박적 성격의 차이를 보면 완벽주의는 규칙과 통제에 저항을 하지만 강박적 성격은 집착을 하고, 완벽주의는 과제를 미루고 지연시키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강박적 성격은 일처리를 잘하고, 완벽주의는 부정적 정서나 적대감을 지니지만 강박적 성격은 정서적으로 억압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완벽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완벽주의가 단일 차원의 단순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사고, 행동, 정서적인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가정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이 뒤따르게 되었다. 또한 많은 완벽주의 관련 연구들이 완벽주의 척도를 이용하여 다른 변인과 연관되어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완벽주의 척도에 관한 신뢰도를 검증해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에 대한 타당도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이때 완벽주의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그 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완벽주의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ewitt과 Flett(1991c), 이기종(2006)이 각각 제안한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연구모형의 타당도 여부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검증할 것이다. 또한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II. 완벽주의 개념 및 관련 연구

1. 완벽주의의 개념

완벽주의의 개념에 대해 최초로 심리학적 정의를 내린 Hamacheck(1978)은 완벽주의를 정상적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상적 완벽주의자는 필요할 때 힘들게 노력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상황이 허

용되면 완벽해지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충분히 잘했다거나 완벽하게 해냈다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 Burns(1980)는 완벽주의란 도달하거나 납득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의 가치를 모두 생산성과 업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Sorotzkin(1985)는 신경증과 자기애적 성격장애에서의 완벽주의를 구별하였다. 신경증에서의 완벽주의는 학습이나 억압된 적대감의 결과로 생긴 가혹한 초자아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심리 내적 갈등에 대한 방어이다. 그 결과로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반면 자기애적 성격장애에서의 완벽주의는 웅대한 자기상에 맞추려는 시도으로써 낮은 자존감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한편, Adler(1956)나 Hollender(1965)의 경우, 완벽에 대한 추구는 우수성에 대한 비현실적 기준을 목표 성취에 부가할 때에만 문제가 되는 발달의 정상적 측면이지 그 자체가 병리적 현상은 아니며 오히려 삶의 적극적 관점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Slaney와 동료들(1995)도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언급하면서 완벽주의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완벽주의는 자신이 도달하거나 납득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과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완벽주의에 대한 개념과 함께 완벽주의와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요인들과 연결되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우울과 같은 질환과 관련하여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안, 먹는 질환, 성격질환, 그리고 부적응과 같은 여러 유형들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Bruch(1978)는 완벽주의를 섭식장애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하고, Burns(1980)는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사고의 형태와 관련하여 완벽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 불안, 비만증, 편두통, 자살과 완벽주의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Deffenbacher 외, 1983; Goldfried & Sbbocinski, 1975). Broday(1998)는 완벽주의와 성격유형간의 관련성 연구에서 완벽주의가 수동-공격적 성격, 회피적 성격, 정신 분열증적 성격, 의존적 성격 등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현진원(1992)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적응력이 낮고 우울, 불안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기연(1993)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자들이 비완벽주의자들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자신의 수행에 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이분법적 형태의 사고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데 이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할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가 완벽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됨을 제안하고 있다.

완벽주의와 여러 정신병리, 부적응간의 관계연구 중에서 우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Burns(1980)는 완벽주의 특징 중의 하나인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이 우울을 유발한다고 하고, Hewitt과 Dyck(1986)의 연구에서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반해 비완벽주의자들은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과 스트레스간의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Hewitt과 Flett(1991b, 1993)은 완벽주의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등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대시켰다. 완벽주의의 여러 차원이 우울에 각기 다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학업성취 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은 대인관련 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하여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Saddler와 Sacks(1993)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우울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존감, 자신감, 비합리적 신념, 자기효능감 등의 인지적 개념과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 우울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을 보면, Kanfer와 Zeiss(1983)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개인적 수행기준과 자기효능감 간에 차이가 클 때 우울이 유발되며, 우울한 사람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낮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울에 미치는 인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완벽주의와 우울과 관련된 연구들이 단순한 상관관계를 보고하면서 높은 완벽주의 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모두 우울하다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지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를 살펴보면, Lynn, Bieling과 Wallace(1994)는 완벽주의의 3가지 차원과 자기평가, 자기조절 등의 인지적 측면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들

도 완벽주의적 성향과 우울, 불안간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면서, 더 나아가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 불안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목표의 설정과 목표 도달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즉 단순히 완벽주의자들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는 것은 부적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설정된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의해서, 그리고 높은 기준과 기대와 지각된 자신의 능력, 즉 자기효능감 간의 정도차이에 의해서 적응 또는 부적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호작용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상호작용을 하여 우울을 예측함을 보고하고 있다(Brown, 1993).

완벽주의와 관련한 초기연구부터 최근까지 완벽주의 관련 연구들을 탐색해 본 결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주력하였다. 완벽주의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진 변인들 중에서 우울(Rice, Ashby & Slaney, 1998; Hewitt, Flett & Ediger, 1996; Saddler & Buckland, 1995; Hewitt & Flett, 1993; Saddler & Sacks, 1993; Flett et al., 1991; Frost & Marten, 1990; 김혜진, 2006; 장애경, 2006; 정현숙, 2006; 김수연, 2005; 이은중, 2003; 장래수, 2003; 장현미, 2003; 조병금, 2003; 최문선, 2003; 모혜연, 2000; 이은희, 1999; 김근홍, 1998; 김연수, 1998; 박진희, 1998; 문경, 1997; 유성은, 1997; 홍혜영, 1995), 불안(Antony, Purdon, Huta, & Swinson, 1998; Saboonchi, Lundh, & Lars-Gunnar, 1997; Mor, Day, Flett, & Hewitt, 1995; Lynn, Bieling, Wallace, 1994; Frost & Henderson, 1991; Flett et al., 1989; 김혜진, 2005; 박소영, 2005; 송은영, 2005; 정태구, 2004; 박재명, 2003; 장현미, 2003; 조영미, 2003; 홍종호, 2002; 정옥경, 2001; 고성자, 2000; 김은경, 2000; 최원혜, 1999; 박주영, 1998; 최정임, 1998; 채숙희, 1997), 사회공포증(Beiling & Alden, 1997; Juster, Heimberg, Frost, Holt, Mattia, & Faccenda, 1996), 강박증(Brody, 1998; Frost et al., 1990), 자살사고(Chang, 1998; Blatt, 1995; Adkins, 1986; 김영환, 1999), 스트레스(박은영, 2005; 이정립, 2005; 임효순, 2004; 이은영, 2003; 송경애, 2001; 윤수영, 2001; 모혜연, 2000; 박은영, 1999; 김연수, 1998; 유성은, 1997)와 같은 변인들이 최근까지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 외에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완벽주의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완벽주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완벽주의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완벽주의 성향의 부적응적 측면만을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완벽주의 성향을 적

응, 부적응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Frost와 Marten, Lahart, Rosenblate(1990), Hewitt와 Flett(1991c)은 다소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각각 개발하였다. 이 척도의 개발로 완벽주의 성향의 다차원적 구성개념이 경험적으로 증명되면서(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c) 완벽주의 성향은 크게 개인적 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적 염려 완벽주의로 나뉜다고 보고 있다. Hewitt과 Flett(1991c)은 완벽성을 대표하는 45개 문항을 통하여 개인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 존재하는 특성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세 하위차원-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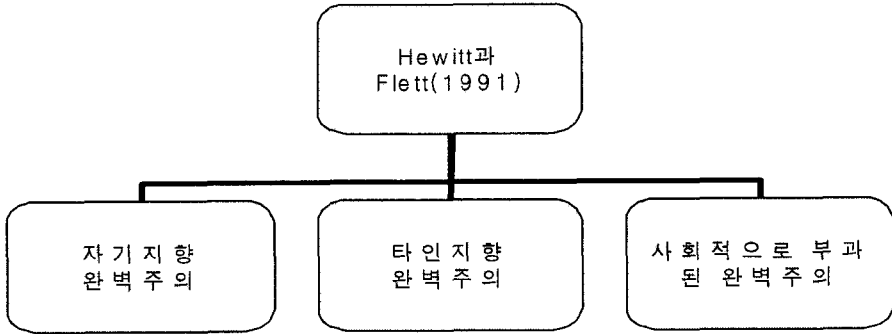
III.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탐색

1.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완벽주의의 특징은 크게 사고, 행동, 정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사고특징으로는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 실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수행에 관한 의심 및 자기비난, 이분법적 사고, 과일반화, 해야만 한다 진술 등이 있다. 행동특징으로는 지연행동이 있고, 정서적 특징으로는 부적절한 정서로 대표적인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들 수 있다(Burns, 1980; Hamacheck, 1978; Pacht, 1984). 이러한 완벽주의의 특징에서 완벽주의가 단일차원의 단순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사고, 행동, 정서적인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가정이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제안되었다. 본 장에서는 완벽주의에 대한 새로운 척도의 개발을 가져온 Hewitt과 Flett(1991c), 이기종(2006)이 제안한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모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Hewitt과 Flett(1991a, 1991b, 1991c)은 완벽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으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의 3차원으로 제시하였다. Hewitt과 Flett(1991a, 1991b, 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 모형은 <그림1>에 제시하고 있다. 이기종(2006)은 완벽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으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의 2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이기종(2006)이 제안한 완벽주의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의 모형은 <그림1>에 제안하고 있다.



<그림1>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모형

Hewitt과 Flett(1991c)은 완벽주의를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자기지향적 인지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래의 단일차원적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에 대한 완벽주의가 완벽주의 구조에 핵심적 성분이라는 하지만 대인적 측면 또한 그 구조에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인적 측면은 대인관계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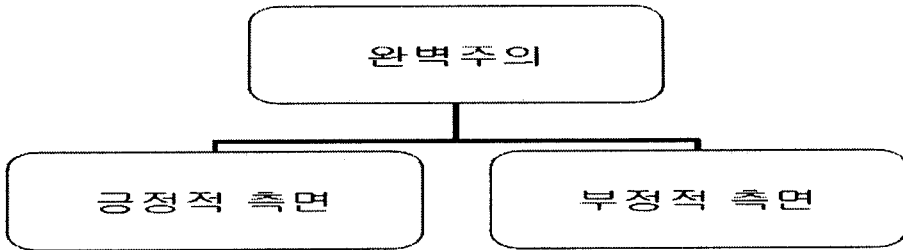
따라서 대인적 측면에 대한 요인을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에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Hewitt과 Flett(1991c)이 제안한 완벽주의 특성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완벽주의 특성의 하위요인	문항 구성
자기지향 완벽주의	1, 6, 8, 12, 14, 15, 17, 20, 23, 28, 32, 34, 36, 40, 42
타인지향 완벽주의	2, 3, 4, 7, 10, 16, 19, 22, 24, 26, 27, 29, 31, 33, 38, 39, 43, 4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5, 9, 11, 13, 18, 21, 25, 30, 35, 37, 41, 44

1990년대 이후에 완벽주의 성향을 적응, 부적응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완벽주의에 대한 새로운 척도의 개발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기종(2006)이 제안한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

요인 모형을 <그림2>에 제시하였다.



<그림2> 이기종(2006)이 제안하는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모형

이기종(2006)이 제안한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모형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된 하위요인별 문항을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표 2> 이기종(2006)이 제안한 완벽주의 특성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완벽주의 특성의 하위요인	문항 구성
긍정적 측면	1, 2, 4, 6, 7, 10, 12, 14, 15, 16, 17, 19, 20, 22, 23, 24, 26, 27, 28, 31, 32, 33, 34, 36, 38, 39, 40, 42, 43, 45
부정적 측면	5, 9, 11, 13, 18, 21, 25, 30, 35, 37, 41, 44

<표 2>에 완벽주의 특성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한 이론적 배경은 Frost 외(1993)의 연구에서 Hewitt과 Flett(1991c)의 MPS와 Frost와 Marten(1990)의 MPS를 요인 분석했을 때 완벽성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완벽주의 특성의 하위요인 탐색은 기존 완벽주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다. Hamachek(1978)도 Hewitt과 Flett(1991c), Frost와 Marten(1990)과 같이 완벽주의 특성의 하위요인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즉, 완벽주의를 정상적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정상적 완벽주의자들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성취의 기쁨을 갖고자 하며, 자신의 한계와 장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성취수준을 현실적으로 잘 설정하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달리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성취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높은 수행수준을 선택하여 그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평가를 한다.

이처럼 완벽주의 특성에 대한 균형된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Burns(1980)와 Blatt(1995)도 완벽성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기술하고 있다. Burns(1980)는 완벽주의자들은 비교적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건강한 방법으로 탁월해 지고자 추구하는 성취지향적 사람들과는 달리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오직 성취에만 비추어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완벽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이유는 완벽성이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결과와 관련된다는 연구에서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섭식장애, 낮은 자기존중감, 우울, 강박장애, 지연행동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된다고 제시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한다.

완벽주의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이 개인적인 면과 사회적 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Hewitt과 Flett(1991c)은 완벽주의 성향이 개인 내적인 측면이외에도, 개인 외적, 혹은 대인관계의 측면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기존의 단일차원적 측정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 측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완벽주의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IV. 연구방법

본 연구는 Hewitt과 Flett(1991c), 이기종(2006)이 제안한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모형을 중심으로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Hewitt과 Flett(1991c), 이기종(2006)이 각각 제안한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제안한 모형의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를 위해 완벽주의 척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어떠한 요인들로 묶이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1. 분석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직장인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주영(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이다. 수도권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추출된 편의표본으로 크기는 518이다.

2. 검사도구

이주영(2005)의 연구에서 자료수집을 위한 검사도구는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캐나다에서 표준화되었고 모두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채점되며, 최저 45점에서 최고 315점까지의 점수를 갖게 된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3. 자료분석

완벽주의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LISERL SIMPLIS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관찰변수의 이름을 c1~c45 까지 주고, 표본크기는 518이다. Hewitt과 Flett(1991c)이 제안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 이름은 self, other, social이고, 이기종(2006)이 제안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 이름은 po, ne이다. 경로도를 요구하는 명령문을 지정하였고 잔차, Q그림, 잔차행렬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는 명령문은 rs ad로 지정하였다. 또한 모수추정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ML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Hewitt과 Flett(1991c), 이기종(2006)이 주장하는 대로 45개의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적 구인을 제대로 관찰해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즉, Hewitt과 Flett(1991c)이 제안한 잠재변수인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관찰변수 1 ~ 45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기종(2006)이 제안한 잠재변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과 관찰변수 1 ~ 45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하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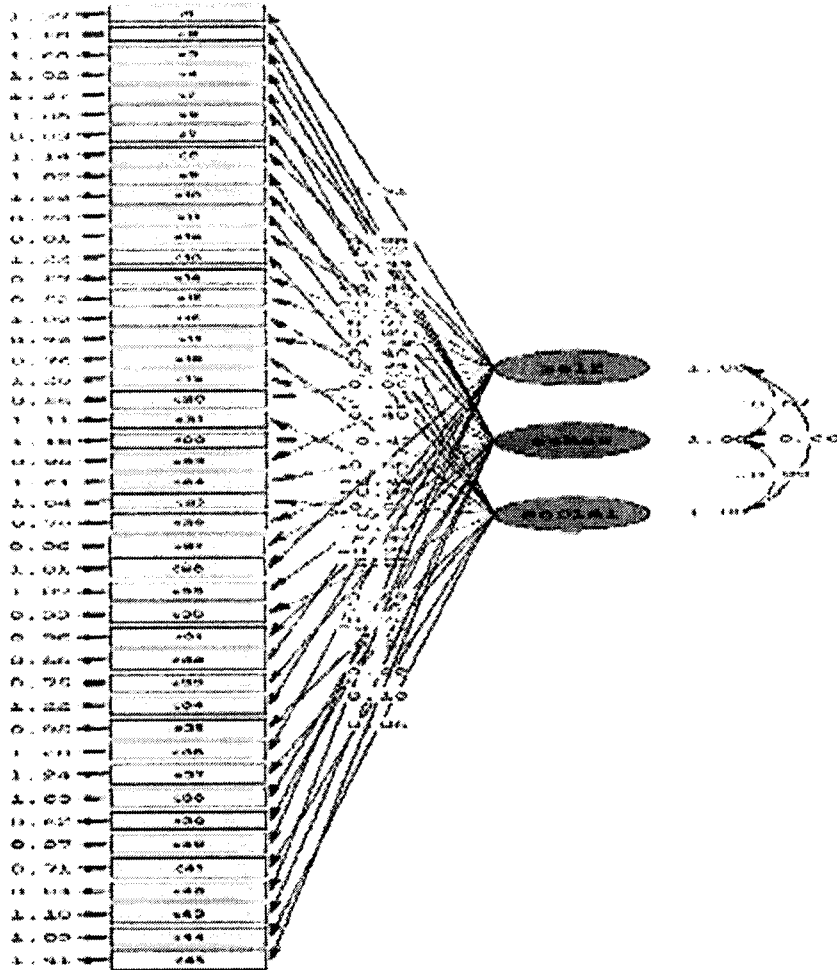
V. 결과 및 해석

1. Hewitt과 Flett(1991c)에 의해 제안된 연구모형 분석 결과

1) 연구모형의 설정

Hewitt과 Flett(1991c)에 의해 제안된 연구모형이 3개의 잠재변수(self, other, social) 간에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모형의 논리적 추론이 합당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 1은 측정변수 15개, 잠재변수 1개이며, 연구모형 2는 측정변수 18개와 잠재변수 1개이며, 연구모형 3은 측정변수 12개, 잠재변수 1개인 모형이다. 이 모형의 경로도를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Chi-Square = 4799.50, df = 942, P-value= 0.000, RMSEA = 0.089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도

2) 모형의 적합도 검정

완벽주의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구안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를 산출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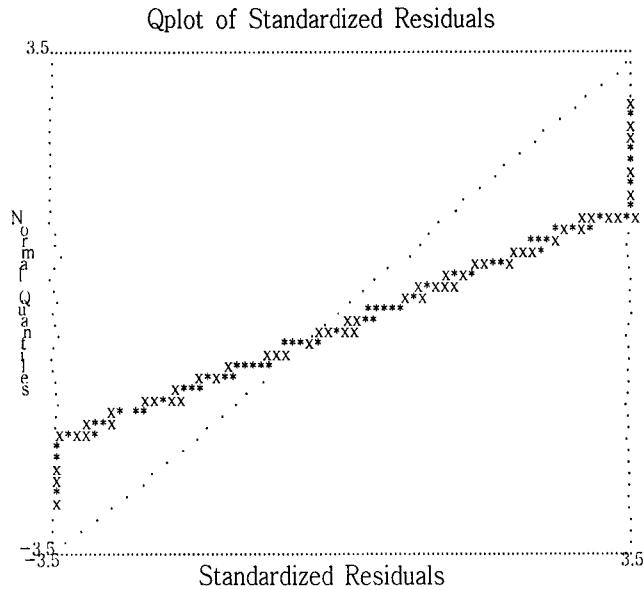
χ^2	<i>df</i>	<i>RMSEA</i>	<i>RMR</i>	<i>GFI</i>	<i>AGFI</i>	<i>NFI</i>
4799.50	942	0.089	0.11	0.71	0.68	0.64

위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자유도가 942인 Chi-square 값은 4799.50이며, Chi-Square 값이 관찰될 확률은 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ewitt과 Flett(1991c)이 제안한 연구모형이 리얼리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RMSEA의 값은 0.05보다 작아야 양호한 상태이고, 0.05~0.10이면 보통, 0.10보다 크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0.089로 연구모집단을 모형이 보통정도로 근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설정된 모형이 수집된 자료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잔차제곱평균제곱근(RMR)은 제곱값이므로 -값은 생기지 않으며 RMR값이 0에 가까울수록 설정된 모형과 수집된 자료와 잘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RMR이 .05보다 작으면 양호한 상태인데, 분석 결과 .05보다 큰 0.11이므로 설정된 모형과 수집된 자료와 잘 합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적합도지수(GFI)는 수집된 모자료에 설정된 모형이 얼마나 잘 합치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여기서 완전한 합치는 1로, GFI값이 .95이상이면 좋은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나 이 기준은 임의적이다. 분석결과 .71로 .95보다 작게 나타났다. 조정적합도지수(AGFI)는 표본크기에 비해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크면 자유모수의 수가 많을 때를 제외하고 값이 작아지는 GFI의 단점을 고려한 것이다. AGFI 또한 GFI와 마찬가지로 자료에 모형이 완벽하게 합치하면 그 값이 1이 된다. 일반적으로 AGFI 값이 .95이상이면 좋은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나 이 기준은 임의적이다. 분석결과 .68이므로 자료에 모형이 잘 합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규준합치지수(NFI)도 .95 이상일 때 의미를 갖는데 분석결과 .64로써 나타나고 있다.

<그림 4>에 제시된 Q그림은 RMR과 마찬가지로 잔차를 이용한 기법으로 RMR과 다른 점은 RMR이 잔차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면 Q그림은 잔차를 표준화시킨 것이다. 잔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Q그림의 기울기가 대각선보다 가파르면 모형합치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각선보다 완만하면 모형합치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모형의 Q그림은 표준화잔차들이 대각선보다 완만하여 모형합치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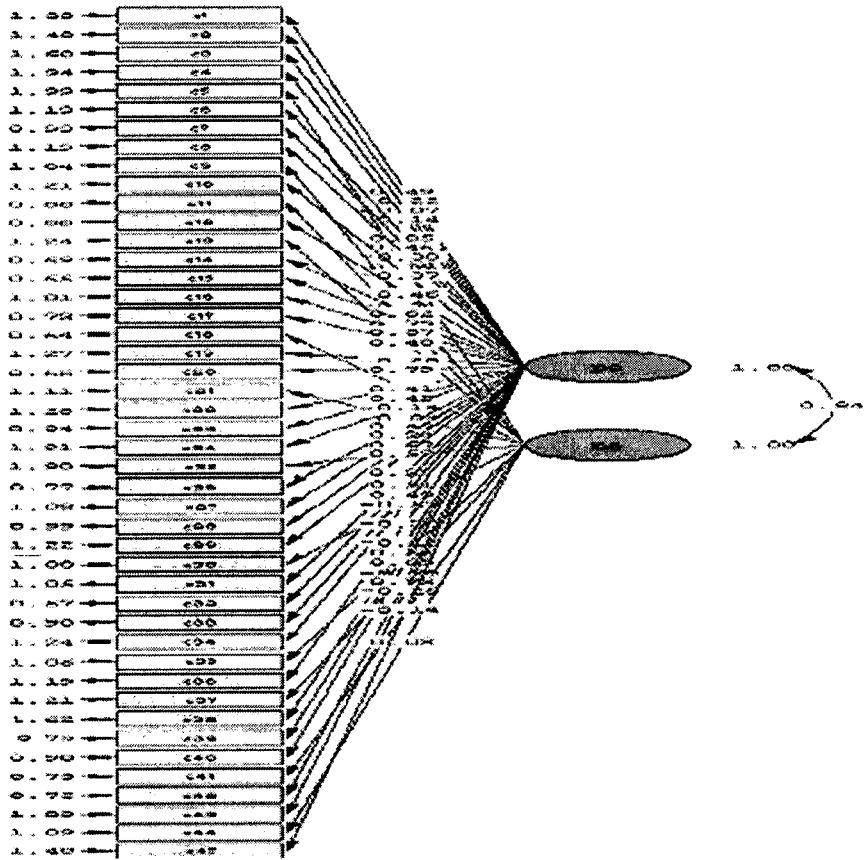
<그림 4> 표준화 잔차

위 결과를 놓고 미루어 볼 때, Hewitt과 Flett(1991c)이 주장하는 완벽주의 척도는 리얼리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수집된 자료에 설정된 연구모형이 잘 합치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모형적합도이기 때문이다.

2. 이기종(2006)에 의해 제안된 연구모형 분석 결과

1) 연구모형의 설정

이기종(2006)에 의해 제안된 완벽주의 연구모형은 2개의 잠재변수와 관찰변수 45개가 있는 것이다. 이 모형의 경로도를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Chi-Square =3978.42, df = 944, P-value= 0.000, RMSEA = 0.097

<그림 5>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도

2) 모형의 적합도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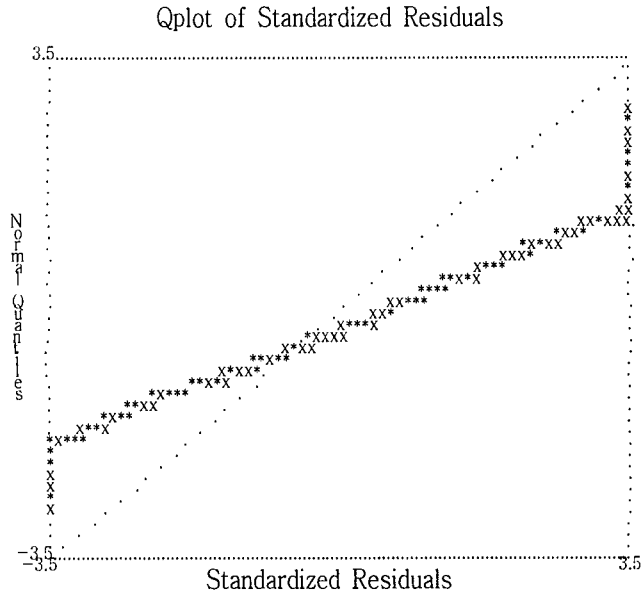
이기종(2006)이 제안한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구안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 (goodness of fit index)를 산출하였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RMSEA	RMR	GFI	AGFI	NFI
3978.42	944	0.097	0.11	0.68	0.65	0.45

위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이기종(2006)이 제안한 연구모형도 Hewitt과 Flett(1991c)이 제

안한 연구모형과 같이 리얼리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림 6>에 제시된 Q그림에서 표준화잔차들이 대각선보다 완만하여 모형합치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6> 표준화 잔차

이처럼 이기종(2006)이 제안하는 완벽주의 모형도 Hewitt와 Flett(1991c)이 제안한 연구모형처럼 설정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합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 척도가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기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완벽주의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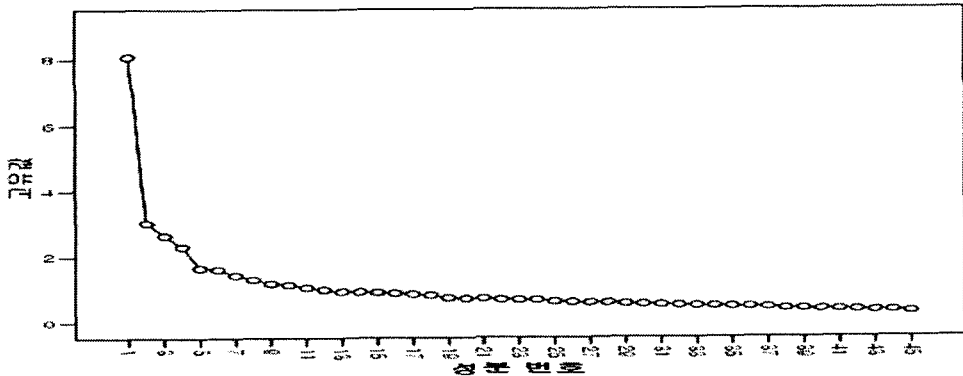
요인분석의 중요한 목적은 수집된 자료를 축소하는 데 있다. 자료를 축소할 때 기준은 일반적으로 고유값이 1이상인 것을 요인으로 결정하는 Kaiser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유값 1이상인 것을 요인으로 선정하면 이론적으로는 문항숫자와 동일한 요인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요인을 선정할 때 스크리를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통한 Varimax 방식이다. Varimax 회전은 요인 간에 상관이 없으므로 해석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설명된 총분산에 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다.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유값이 1이상인 것은 모두 11개이다. 이것들이 잠재적 요인의 후보군이다.

<표 5>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적합 적재값			회전 적합 적재값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1	8.075	17.945	17.945	8.075	17.945	17.945	4.300	9.555	9.555
2	3.025	6.722	24.667	3.025	6.722	24.667	3.553	7.896	17.451
3	2.633	5.852	30.519	2.633	5.852	30.519	2.724	6.054	23.505
4	2.302	5.115	35.635	2.302	5.115	35.635	2.367	5.261	28.766
5	1.655	3.677	39.312	1.655	3.677	39.312	2.161	4.803	33.568
6	1.605	3.566	42.878	1.605	3.566	42.878	2.027	4.505	38.073
7	1.429	3.175	46.053	1.429	3.175	46.053	1.783	3.963	42.036
8	1.289	2.865	48.919	1.289	2.865	48.919	1.773	3.941	45.977
9	1.166	2.591	51.510	1.166	2.591	51.510	1.655	3.678	49.655
10	1.126	2.501	54.011	1.126	2.501	54.011	1.521	3.379	53.034
11	1.047	2.326	56.338	1.047	2.326	56.338	1.486	3.303	56.338

잠정적 요인후보 11개를 스크리로 표시한 결과는 <그림 7>에 제시된다. 아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4번째 성분까지만 요인이며 나머지는 스크리로 보여진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요인의 개수는 모두 4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스크리

문항이나 각 변인이 어떤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는 요인 부하값(factor loading)에 의해 결정되므로 변인의 선택은 요인 부하값이 .30이상인 값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인 것만을 나타내어 가독성을 높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로 변인들에 대한 회전된 성분행렬은 <표 6>에 보고하고 있다.

<표 6> 성분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c.1	.403				.300						
c.2		.304									
c.3											
c.4			.315								
c.5		.324									
c.6	.617			.324							
c.7	.464										
c.8	.330	.446									
c.9											
c.10	-.367										
c.11	.376				-.308						
c.12	-.445	.462									
c.13	.595	.405									
c.14	.581			.471							
c.15	.684			.402							
c.16	.679										
c.17	.420	-.320	.326								
c.18	.610										
c.19											
c.20	.572			.302							
c.21	-.325		.546								
c.22	.340										
c.23	.442										
c.24		.311	.340								
c.25					.403						
c.26						.306					
c.27	.471				.374						
c.28	.354	.364									
c.29	.575										
c.30	.504	.371									
c.31	.380	.350									
c.32	.562		.306								
c.33	.505	.323			-.320						
c.34	-.285		.324								
c.35	.471	.323									
c.36	-.310										
c.37					.508	.321					
c.38											
c.39	.587										
c.40	.530										
c.41	.510										
c.42	.668										
c.43											
c.44			.509								
c.45			.548	-.362							
c.46			.374						.312	.384	

요인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a. 추출된 11 성분

<표 6>에 따르면 문항 6은 요인 1과 요인 4에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문항 8은 요인 1과 요인 2에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문항 1 ~ 45 중에서 각 측정변인에 속하는 문항들이 단일 요인을 형성하고 있는 문항은 1, 2, 3, 4, 5, 7, 9, 10, 11, 16, 18, 19, 23, 26, 28, 36, 37, 38, 39, 40, 41, 42, 43, 45임을 알 수 있다. 문항 6, 8, 12, 13, 14, 15, 17, 20, 21, 22, 24, 25, 27, 29, 30, 31, 32, 33, 34, 35, 44는 단일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요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의 문항이 요인 1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1에 부하량이 높은 변인들은 문항 42(나는 학업에서나 일에서나 항상 성공해야 한다), 문항 15(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문항 20(나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란다.), 문항 6(나의 목표는 모든 일에서 완벽해 지는 것이다.), 문항 18(다른 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문항 40(내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부여한다.), 문항 39(사람들은 내가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등이 있다. 따라서 요인 1은 과도한 기준의 설정,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비난, 평가 등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으므로 '높은 기준지향'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 2는 문항 5(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가 어렵다.), 문항 8(나는 일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지 않는다.), 문항 12(나는 완벽해지고자 하는 요구가 거의 없다.), 문항 13(내가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게 볼 것이다.) 등이 있다. 따라서 요인 2는 수행에 대한 의심으로 자신에게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졌으므로 '사회적 업무수행 의심'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 3은 문항 30(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문항 44(내 주의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할 경우에도 여전히 나를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문항 21(내가 모든 일에서 탁월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등이 있다. 따라서 요인 3은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기대와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졌으므로 '사회적 기준지향'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 4는 문항 14(나는 가능한 한 완벽하려고 애쓴다.), 문항 15(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문항 20(나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란다.) 등이 있다. 따라서 요인 4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 기준으로서가 아닌 높은 기준을 중요시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으므로 '개인적 기준지향'으로 명명할 수 있다.

<표 5>와 <표 6>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의 요인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Hewitt과 Flett(1991c)이 제안한 3개 차원의 하위요인이 아닌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4개요인, 또는 이기종(2006)이 제안한 2개 요인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 문항에 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Hewitt과 Flett(1991c), 이기종(2006)이 제안한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들이 몇 개의 요인들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검증 결과, Hewitt과 Flett(1991c), 이기종(2006)이 제안한 완벽주의 척도 모형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료에 모형이 잘 들어맞도록 모형을 수정해야 함을 인식하고,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몇 개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의 각 문항들이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척도의 45개의 문항들 중 많은 문항들이 단일요인으로 제 기능을 하기 보다는 여러 문항에 걸쳐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볼 때 Hewitt과 Flett(1991c)의 완벽주의 척도가 측정하는 요인은 '자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3개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4개의 요인에 적합한 문항개발을 통해 완벽주의 척도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므로 Hewitt과 Flett(1991c)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의 측정 문항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나가서 우리의 사회·문화적 실정을 고려한 완벽주의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성자. 2000. 완벽주의적 성향, 자기효능감이 평가적 상황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들의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근홍. 1998.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 효능감이 우울과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2005. 대학생의 완벽주의성향과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0. 여고생의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및 불안과의 관계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 1998. 성취관련 스트레스 경험 후 완벽주의와 자존감이 우울발생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1999. 부적 사건경험, 완벽주의적 성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간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06.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모혜연. 2000. 청소년기 스트레스 요인과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 경. 1998. 완벽주의 차원과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2005. 완벽주의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를 중심으로. 가톨릭 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1999. 두통집단의 완벽주의 성향, 스트레스 강도, 대처방식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영. 1998. 완벽주의와 자기-감시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명. 2003. 중학생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애. 2001. 중학교 과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은영. 2005.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종. 2006.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 모형 탐색."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논총> 26(2): pp95-116.
- 이은영. 2003.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적응의 차

- 이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종. 2003. 아동후기의 애착 안정성과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 성향에 미치는 관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1999. 지각된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완벽주의와 우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영. 2005. 직장인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 2005. 초등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순. 2004.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완벽주의 성향이 사회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은. 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수영. 2001.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문제 해결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병금. 2003.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 및 자기존중감과 우울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미. 2003. 청소년의 완벽주의성향 및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래수. 2003. 부모의 완벽주의, 우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애경. 200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수준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미. 2003. 완벽주의 수준에 따른 여대생의 우울, 불안, 자의식, 지연 특성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경. 2001. 완벽주의 성향이 불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구. 2004. 성인학습자의 완벽주의성향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2006. 초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효능감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문선. 2003. 완벽주의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대처의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원혜. 1999. 중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 상황에서 완벽주의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임. 1998. 완벽주의 성향, 시험불안,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숙희. 1997. 완벽주의 성향 및 외-내향성이 자아방어기제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종호. 2002. 완벽주의 성향이 시험불안자의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kins, K. K., & Parker, W. D. 1986. "Perfectionism and suicidal preoccu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64: 529-543.
- Adler, A. 1956. The neurotic disposition. In Ansbacher, H. L & Ansbacher, R. R(Eds),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New York: Haper & Row
- Antony, M. M., Purdon, C. L., Huta, V., & Swinson, R. P. 1998.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cross the anxiety disorde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1143-1154.
- Beiling, P. & Alden, L. E. 1997. "The consequences of perfectionism for patients with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 612-615.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American Psychologist* 50: 1003-1020.
- Brody,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American Psychological Reports* 63: 791-794.
- Brown, S. R. 1993. Perfectionistic thinking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psychosocial development. EDD. University of Georgia.
- Bruch, H. 1978. The golden cag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 34-52.
- Chang, E. C. 1998. "Cultural differences, perfectionism, and suicidal risk in a college population: Does social problem solving still matt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 237-254.
- Deffenbacher, J. L., Zwemer, W.A., Whisman, M. A., Hill, K. A., & Sloan, R.D. 1983. "Irrational beliefs and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281-292.
- Flett, G. L., Hewitt, P. L. & Dyck, D. G. 1989. "Self-oriented perfectionism, neuroticism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731-735.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61–68.
- Frost, R. O., Marten, P. A. 1990. "Perfectionism and evaluate threa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 Hederson, J. 1991. "Perfectionism and reaction to athletic competi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3: 323–335.
- Frost, R. O., &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Goldfried, M.R., & Sobocinski, D. 1975.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and emotional arous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04–510.
- Hamachec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d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137–142.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ewitt, P. L., & Flett, G. L. & Ediger, E. 1996.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Longitudial assessment of a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276–280.
- Hewitt, P. L., & Flett, G. L. 1991a.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1b.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98–101.
- Hewitt, P. L., & Flett, G. L. 1991c.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 Reliability,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in Psychiatric samples." *Psychological assement :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 464–468.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 94–103.
- Juster, H. R., & Heimberg, R. G., Frost, R. O., Holt, C. S., Mattia, J. I. & Faccenda, K. 1996. "Social phobia and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 403–410.

- Kanfer, R, & Zeiss, A. M. 1983. "Depression, interpersonal standard setting and judgement of self-effica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319-329.
- Lynn, E., Bieling, P. J., & Wallace, S. T. 1994. "Perfectionism in an Interpersonal Context :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ria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 297-316.
- Mor, S., Day, H. I., Flett, G. L., & Hewitt, P. L. 1995. "Perfectionism, control, and components of performance anxiety in professional artis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07-225.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4-314.
- Saboonchi, F. & Lundh, Lars-Gunnar. 1997. "Perfectionism, self-consciousness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 921-928.
- Saddler, C. D., & Buckland, R. L. 1995.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Correlations with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Psychological Report* 77: 483-490.
- Saddler, C. D., & Sacks, L. A. 1993.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 73: 863-871.
- Slaney, R. B., & Ashby, J. S., & Trippi, J. 1995. "Perfectionism: Its measurement and career releva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279-297.
- Sorotzkin, B. 1985. "The quest for perfection: Avoiding guilt or avoiding shame?" *Psychotherapy* 22: 564-571.